

이 언덕을 보고 누가 복어를 떠올릴 것인가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84>

3부 오름

(143) 마보기와 하니보기

묘비에서 출발한 지명해독

그 뜻을 알 듯 말 듯한 오름이 있다. 마보기와 하니보기다. 도드라지지는 않으나 인근에서 분명하게 오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마보기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록남로 광평입구교차로 동북쪽에 있다. 이 오름은 영아리오름에 이르는 탐방로 도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오름은 역사발이 넓게 형성돼 있어서 가을의 경치로 본다면 일대 장관을 이룬다. 자체높이는 45m에 불과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멀리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이 아스라이 떠 있고, 거대한 바위산 산방산이 반짝거리는 바위를 드러내 보인다. 이 외에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오름은 많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96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니오름이 있다. 505.7m이니 표고 559.7m인 마보기보다 약 50m 정도 낮다. 북쪽에는 영아리오름이 있는데 영아리오름과 하니오름 사이에 하니보기가 있다. 마보기에서 북북서쪽에 해당하는데 마보기에서 하니보기까지는 약 740m 정도 떨어졌다. 마보기, 하니보기, 하니오름 세 개의 오름이 삼각형을 이루며 배치해 있는 셈이다. 참고로 하니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름 목록 368개 중에는 없다. 그러나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는 명기돼 있다.

마보기, 하니보기, 여기에 더해하니오름, 이 세 오름의 지명이 관심을 끈다. 평소 지명에 별 관심이 없다가도 이런 곳에 오면 그 지명의 뜻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오름 나그네'라는 책에는 '마보기'를 보통 '마뽕이'라 부른다는데 그 뜻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인근 묘비에 '남북악(南福岳)'이라 표기한 것을 발견하고는 '마'는 '남(南)'에 대응하는 것이니 남쪽을 일컫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마뽕이'가 마파람이 많이 불어오는 오름이라고 풀었다. '보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라는 것이 흔히 '마파람'이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이므로 이



하니보기. 마보기 정상에서 촬영.



마보기. 영아리오름 남사면에서 촬영.

김찬수

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보기'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니보기는 하니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오름으로 풀이하기 마련이다.

복어가 왜 거기서 나와?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의 오름'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모자라 하니보기와 함께 계절풍의 풍향 위치와 따른 특성으로 구분돼 이름 지어졌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말이란 이렇게 구슬수록 불어나는 눈덩이처럼 불고 또 불기를 거듭하면서 점

점 그럴싸하게 꾸며지기 마련이다. 이 오름이 주변의 오름에 비해 유난히 마파람이 많이 부는지, 계절풍의 풍향 위치와는 어떤 특수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다만 인근의 묘비에 표기한 '남북악(南福岳)'의 '남(南)', 이 한 글자에서 출발한 것이 이렇게 불어나 이야기가 됐다.

이 세 오름의 지명은 다소 헛갈리게 됐다. 여기서는 표고 559.7m(카카오맵 기준)의 오름을 마보기, 592.3m의 오름을 하니보기, 505.7m의 오름을 하니오름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니오름에 대해서 어느 책에는 1910년경 조선지리지자료에 '상천리 복이산

(上川里 福伊山)'이라고 표기됐으면서 '복이산'은 '복이오름[보기오름]'의 한자차용 표기라 했다. 그런데 그 풀이가 기상천외하다. 즉, '복이[보기]'는 고유어 '복' (복어)에 명사형접사 '-이'가 덧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과 같은 형태를 한 둥그런 언덕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언덕을 보고 누가 복어를 떠올릴 것인가. 지명이란 일반이 공감하는 말로 지어지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특수한 어휘를 골라 지명에 사용했다는 것인가. 이 오름이 복어를 닮았나? 그러면서 하니보기의 하니는 '서쪽'을 뜻하는 말이며, '복이'는 역시

'복어'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다. 마보기는 맛복이[마뽕이]라고도 하는데, '마'는 남쪽을 뜻하며, '복이'는 복과 같은 둥그런 언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

마는 '마르', 보기는 '뽕이'에서 기원

지명은 유사한 특성끼리 묶이는 특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단순하게 지리·지형적 특성만을 이름에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면 족했다. 그러던 것이 백두산, 한라산, 압록강, 한강처럼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 백두, 한라를 전부요소라 하고, 산·강을 후부요소라 한다. 마보기니 하니보기니 하는 지명의 '보기'는 후부요소인데 '보기'란 '복어'가 아니라 지형이 불룩하다는 뜻의 '불룩이'였을 것이다. 이 말은 고어형 '불'에서 점차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갔다. 전 회의 바늘오름과 바리매 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수많은 붉은오름, 밝은오름도 이 계열이다. '오름'이라는 후부요소가 덧붙기 전 혹은 오름이라고 하기엔 낮은 지형 정도의 뜻으로 '뽕이' 혹은 그 유사음으로 부르던 것이 축약되면서 '보기'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는 '마르'의 축약이다. '하니보기'는 지명으로 볼 때 '마보기' 인근 좀 더 큰 마보기라는 의미로 '하니마보기'라는 지명으로 불렸을 수 있다. '하니' 혹은 '하늬'란 '한'의 연음이다. 이것이 축약되면서 '하니보기'가 된 것이다. 지금 일부에 '하니오름'으로 나오는 오름을 마보기 또는 '맛복이[마뽕이]'라고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전에는 이 오름도 '마보기'라 불렸을 것이다.

하니보기의 봉우리를 회오리봉이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회오리'란 '회'+'울'로 추정된다. 오늘날 하니보기와 하니오름을 독립적인 오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위가 평평하고 넓은 하나의 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형을 '드르', '다래' 등으로 부른다. 이 말은 한자로 차용할 때 주로 '돌회(回)'로 차차했다. 그러므로 '회오리'란 '돌오름' 혹은 '다래오름'의 한자차용과 고유어 결합이라 할 것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승진

치안정감



고 평 기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찰대학 제주동문회

회장 박기남 외 동문 일동

승진

치안정감



고 평 기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長田 田友會 一同

수상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초등부 대상

삼화 소리울림 윈드 오케스트라 제주 최초 역사를 쓰다.



삼화초등학교 | 삼화 소리울림 윈드 오케스트라



교장 신문진 지휘 김은솔

Piccolo 허진서 / Flute 김현지, 차한봉, 오은유, 김은솔, 한서연, 박지현, 최시연, 조민서 / Bassoon 김성훈 / Clarinet 문서준, 장지석, 박준희, 황규연, 김수린, 조소연, 이다인, 최선빈, 허다형, 문지우, 최윤성, 양하린, 오하린 / Bass Clarinet 조민설 / Soprano Saxophone 박서현, 김예솔 / Alto Saxophone 김주원, 양하윤, 김그린, 전민지, 오민우, 이예은, 고태희, 양라온 / Tenor Saxophone 강효민, 정지윤, 허윤서 / Baritone Saxophone 김서희 / Horn 안혜린, 허다연, 박서윤, 이지민, 김하민, 현지유 / Trumpet 박소민, 이효은, 김리원, 최승연, 권하윤, 김용민, 김민하, 정유주, 이지후, 이다솔 / Trombone 김이안, 류지훈, 박준하, 오은서, 김물하, 오승민, 윤건우, 문유라, 황규빈 / Bass Trombone 김현수 / Euphonium 김현진, 안태은, 김서하 / Tuba 김도경, 최예은, 이선준, 김예나 / Percussion 김윤서, 강하민, 김도안, 최예원, 김서은, 임정혁, 김이을, 양하늘

삼화초 오케스트라 학부모 일동